



기독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418호

AI 시대, 인간이 잉여? “‘하나님 형상’ 성경적 가르침 필요”

곽혜원·김기석 교수, 10일 한복협 월례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협)가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영동교회(담임 정현구 목사)에서 ‘AI와 기독교윤리’라는 주제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김윤태 교수(한복협 신학위원장,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곽혜원 교수(경기대,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합세한 위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기석 교수(한동대 전신전자공학과)가 ‘인공지능 로봇의 본질과 인식의 갭(Gap)에 대한 이해의 단서, ‘여김에 대하여-기독교 윤리의 기준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21세기 기독교, 위기에 잘 대처하면 인간 존엄성 보호에 앞장서야

먼저, 곽혜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합작으로 21세기는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은 4차 산업이라는 기술혁명의 도구와 함께 우리 삶을 바꿀 것임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준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죽매제가 가세함으로써,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팬데믹이 자주 출몰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환경·교육·종교 등 많은 영역이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함으로써,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상세한 매뉴얼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기독교는 이 시대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위험 시대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 받았다”며 “팬데믹이 합세한 위기 국면에 다음 세대를 치밀하게 준비시키는 것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위험 시대가 도래한 21세기는 누가 더 위험을 피해 가느냐보다는, 누가 위험에 잘 대비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비인간화하여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전통적 가치를 위태롭게 할지, 아니면 공동운명체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의 윤리의식의 세계로 인류의 수준을 높이는 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공존·상생·연대·협력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기독교가 시대와 소통을 할 때에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기독교는 AI를 위시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와 함께 호흡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여파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막대한 규모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21세기 기독교가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곽 교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창 1:27) 존엄한 존재”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체화하고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미래적 잠재성을 지니고 다른 유기체와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서 문화 위임을 수행할 책임적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AI가 인간보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타월한 능력을 보일 경우, 인간이 하던 일의 상당수를 AI가 대체함으로써, 인간은 소위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과학은 학문적 특성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논리적 주장도



곽혜원 교수



김기석 교수

요한 단서를 마련해준다”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혹 심술한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개를 보고 그 로봇개가 정녕 살아있는 로봇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논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잘못 형성될 인간의 어길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만들지 않아 하며, 많은 서비스 끝에는 항상 단지 인공지능 로봇임을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정서적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또 주변에 경고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할 가능성은 절제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로봇은 어디까지나 반도체 회로로 뿐이고 코딩일 뿐이며, 또한 미생물 일 뿐이다. 그것을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기준의 맨 왼쪽이라면, 그 가족들과 정서적 연대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눠 왔기에, 그 가족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또 하나의 아울러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라며 “고린도 전도에서 바울의 선언은 새로운 전략이 아닌 본질로의 회귀였다. ‘오직 예수·오직 십자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교회총연합 인선위, 차기 대표회장에 장종현 목사 선임



한교총 제6-6차 상임회장회의에서 상임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공동대표회장은 김의식·오정호·이철 목사… 상임회장회의 통과 이영훈 대표회장 “기관 통합의 뜻은 다음 회장단에”

기했다.

노형구 기자

故 박상은 장로 셈병

원에서 천국행송예배 » 3면

정전 70주년 UN 참전

국 자녀 육사 초청 » 5면

김준희 교수 “음악을 한다는 것”

» 22면

대우건설

송파 5억대 신규 아파트

마감 임박

1 중도금 무이자
2 송파 랜드마크
3 청약통장 無
4 35층 상향예정

석촌 8 9

40m² ~ 55m² 아파트 총 380세대

문의 전화 02)588-180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 소유주 ■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외국인)는 조합설립인이나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구조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명령으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본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조합설립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 조합원모집 차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기준(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인 결의에 따라 분양기격(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식으로 정한다. ■ 건축관리법 법과에 따라 인허·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기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 기관 조합원의 등·호수·한국·경기도 결의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에게 임무대행의 권한을 임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신기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한교봉, 모로코 지진피해지역에서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

“사랑의 빛, 복음과 희망의 빛으로 갚아야”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이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에서 현지 전문사역 관계자를 통해 이재민 겨울나기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교봉은 “이번 지진은 마라케시 남부 산악지대(아틀라스)에서 일어났다”며 “산악지대 마을 특성상 피해지역이 험악하여 접근 가능한 도로가 1차로이며 낙석의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이 지역은 알아우즈 지역으로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100% 가 무너지거나 손상되어 생존 주민이 모두 이재민이 된 지역”이라며 “외부 기관의 접근의 어려움과 동시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식료품, 텐트, 담요, 기초의약

품,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모로코는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지 의사인 네이마의 도움으로 임정적 지역선정을 면제 했고, 그런 뒤 지역 공무원과 지역 대표와의 여러 차례 유선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해 최종 지역선정과 필요한 물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선정된 두 곳은 레가르가와 트니스키다. 먼저 레가르에 대해 한교봉은 “마라케쉬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진양지에서 멀지 않아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에는 외부 지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지원이 부족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화장실, 텐트 등 필요한 것이 많은 곳



모로코 지진피해지역의 모습 ©한교봉

이다. 이곳 주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고자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트니스키는 마라케쉬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 곳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며 “마을 전체가 무너져서 마을 근처에 있는 빈 공간에 텐트촌

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공동체성이 존재하나 워낙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한교봉은 이들 지역 100가정 400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물품(식품, 의복, 텐트 키트(텐트), 이동화장실, 기초약품)과 이재민 지역의 복구활동(동계지원, 아동 심리

난민 및 재난지역 이재민 총 676,567명에게 약 2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는데, 물품지원 151,667명(45억3천만 원), 음식지원 12,800명(약2백4십만 원), 약품 지원 511,000명(153억3천만 원), 주거지원 4,000명(약2천만 원)이다.

한교봉 김철훈 사무총장은 “모로코 군인 8명이 70년 전 6.25전쟁 당시 프랑스 군복을 입고 UN군으로 자발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며 “그들에게 애국의 빛을 갚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한국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진피해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국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전함으로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금까지 힘을 모아서 협력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교봉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기장 동성애대책위 “제7문서” 수정안서 각주 ‘성적인 쟁점’도 삭제해야”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정기실행위원회(실행위)에서 성적지향, 성평등을 뺀 ‘제7문서’ 수정안을 결의한 가운데, 기장 소속 목사 176명과 장로 231명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위

원장 김창환 목사)는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7문서) 수정안에서 성평등을 당연히 삭제하고 또한 ‘성적인 쟁점이 공동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첨가(각주)

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7문서 수정안’은 지난 9월 기장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 성평등이 들어간 ‘제7문서’ 채택을 두고 격론이 일어총회 임원회가 본안을 수정해 지난 9일 실

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성적지향과 성평등이 삭제된 대신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는 각주가 첨가돼 있다.

이 단체는 “지적한 부분만 삭제하면 간단하다. 그런데 ‘성적인 쟁점’ 사족을 붙였다. 성적인 쟁점이란 ‘자신의 성적인 견해가 옳다고 서로 다른 중심 사항’

이라는 말”이라며 “이것은 다투는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위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용어(성적인 쟁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적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위원회에 올린 ‘수정안’이 결론 끝에 ‘임원회 안’대로 결의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차기 제109회 총회 실행위원회의 보고 때에 ‘각주’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제를 시킨

다음에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 지지그룹에서는 본문에서 삭제되었지만 ‘성평등과 성적 지향’ 용어를 각주에 명시해 역사화·현재화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실패이자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적 은총과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전명하고 영혼 구원과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존립을 보장하는 거룩한 교단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사 모여라!
535개 아름사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사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나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사 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컨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1Lead by S 신한카드

한성연, 제1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임석웅 목사)가 제1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최근 충북 제천 봉양건강축구장에서 개최했다. 한성연 회원교단 목회자 7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축구와 축구 2개 종목을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기성 문창국 총무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서 한성연 문화체육분과위 박성균 목사의 기도, 나사렛성결교회 윤문기 감독이 ‘그중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목회를 위해서는 영정지도력도 필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건강한 육체를 통해 영육 간에 강건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축사를 맡은 예성 이강준 총무도 “성결의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스포

츠를 통해 연합 의지를 다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무제한 선수교체와 상금상패도 수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폐회예배는 예성 이강준 총무

의 사회로 나성 이용주 총무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성 선교스포츠연합회 회장 이준오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이날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제1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현장의 모습. ©예성 총회

한반도 평화통일 등 위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창립

창립 감사예배…
이사장은 이영훈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이 10일 서울 CCMM 빌딩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재단 측은 창립 취지에 대해 “지금 한국 사회는 크게 세 가지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불안감 △한국 사회 내 정치, 경제,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재단 측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며 △한국 사회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싱크탱크(Think Tank)와 △남북 간 평화로운 문화, 경제적 교류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영훈 목사의 이노분복운동 담임은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미

래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재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꿈에 모순되는 현실을 옮바르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안과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만드는 일은 지금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영상으로 축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단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우리 사회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단체라고 들었다”며 “재단이 우리 모두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

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인간이 물을 주어도 자리에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며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 창립하지만 결국 통일과 저출산 극복의 기쁨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창립 감사예배에 앞서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창립기념강연을 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이사와 고문으로 위촉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故 박상은 장로님 미션 이어받아 복음 더욱 증거하자”

11일 안양샘병원에서 고인 천국환송예배 드려져
이재훈 목사 “미션원장” 직함 잘 어울리셨던 분
영원한 나라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실 것
의료선교사 등 장로님과 같은 일꾼 더 많아지길”

故 박상은 장로 천국환송(발인)예배가 11일 아침 안양샘병원 샘누리홀에서 드려졌다.

김성은 목사(안양샘병원 원목실장)가 집례한 예배에선 박문현 한방원장이 기도했고, 성경봉독과 안양샘병원 직원들의 조가가 있은 뒤 이재훈 목사(온누리 교회 담임)가 ‘사망을 이긴 승리자’(고전 15:51~5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심은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분이 가 계신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며 “박 장로님이 이처럼 훌연히 우리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는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장로님이 뒤를 잊는 의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

도인으로서 박 장로님은 미션원장이라는 직함이 너무나 잘 어울리셨던 분”이라며 “장로님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통한 삶에 들어갈 때, 죽음의 독침이 가져오는 영향력 아래 쓰러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거두시며 새 옷을 입하실 것”이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지만 하늘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는다. 박 장로님은 이 땅에서 잠들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은 죽음을으로 모든 죽음을 삼키시고 그 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몸을 덧입게 하셨다”며 “장로님은 이 복음을 체험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셨다.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했다.



故 박상은 장로 천국환송(발인)예배가 11일 아침 안양샘병원 샘누리홀에서 드려졌다. ⓒ김진영 기자

이어 “박 장로님은 선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며 “우리는 사망의 권리에 눌려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박 장로님께서 장기려 박사의 미션을 이어받으셨듯이 우리도 박 장로님의 미션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는 의료인들이 더 많아지고, 장로님과 같은 일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박 장로님은 이 자리에 죽음의 폐배자로 계신 것이다. 사망을 이긴 승리자로 계신다”며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더욱 주 안에서 주님을 섭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찬송했고,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원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 어 고인에 대한 약력소개가 있었고, 고인

의 장남인 박지현 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했다.

박 씨는 “아버지의 미션원장이라는 직함에 대해 생각해봤다. 이 직함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로운 삶을 추억할 수 있다”며 “아버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션원장이셨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부름받으셔서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한 뜻 아래 하나 되도록 모으곤 하셨다.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서 온 힘을 미션을 위해 쏟기를 매일 아침 다짐하셨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다”며 “교회와 병원, 각 단체의 모든 분들께 유족 대표로 깊은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의 빛나는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었던 박 장로는 지난 5일,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활동을 하던 중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 고인은 국내 의료선교계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기독 의사들의 표상

인 故 장기려 박사의 제자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학원에 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신 대 의대 내과 교수,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세인트루이스의대 교환 교수, 생명윤리학회 부회장, 대한기독교병원협회 회장, 안양샘병원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14년 자랑스러운 전문인선교대상 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 2월부터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대한병원협회와 중외제약이 수여하는 제30회 JW중외백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엠글로벌봉사단’을 조직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진료봉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주말진료를 시행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해 자구촌 취약지역 의료봉사에 앞장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도 역임했던 박 원장은 생전 낙태에 반대하며 생명존중운동을 펼쳤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양평 하이페밀리에 수목장(樹木葬)으로 안치된다.

김진영 기자

난민·이주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철학회, 최근 전주대 HK+연구단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철학회(대표 김종걸 회장)가 전주대 HK+연구단과 공동으로 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대학교 대학본관에서 ‘경계 밖의 인간 무리’라는 주제로 2023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오유석 박사(공주교대)의 사회로, ‘경계 안과 밖의 디아스포라’라는 소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서혜정 박사(글로브 암약신학교)가 ‘하나님의 경계, 인간의 경계 – 경계 밖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인 유행 고찰’ △이대승 박사(전주대)가 ‘20

세기 초 재중(在中) 한인 전병훈의 이상사

회론’ △손영창 박사(한국기술대)가 ‘타자성과 환대의 의미’ △김기현 박사(침신대)가 ‘디아스포라, 숙명에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주와 난민,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어져

서혜정 박사는 “세계인권 선언 13조에

는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

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지고, 자국을 포

함해 어떤 나를 떠나든지 자국으로 돌

아울러 “이주와 난민은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인 피난처, 궁극적인 양식, 궁극적인 행복은 저 세상에서 얻게 될 것”이라며 “사도 바울이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사람은 누구나 잠시 이 세상의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게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이대승 박사는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그는 1913년 북경으로 이주하여 ‘정신 철학사’를 건립해 운영하면서 중국 북양 정부 및 고국의 인사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1920년에 동서고금의 사유를 융합하여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을 편찬했다”고 했다.

이어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 「정치철학」편에서 동서의 정치철학을 논하면서 세계가 장차 통일되어 영구평화를 이루는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 하며, 「예운」의 대동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바탕하여 도래할 이상사회에 쓰일 현법으로서 세계공화정부헌법을 제시한다”며 “그의 이상사회론은 동서고금의 정치철학 요소를 조제한 것으로 중국 근대 이상사회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병훈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 인종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하는 공존과 평화, 대동의 미래 세계를 상상하며, 동서양과 만나고 동서양의 학술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설계했다”며 “또한 ‘조선과 중화’ ‘전통

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하물

고, 동서고금의 사유를 ‘조제(調劑)’하여 예레미야의 전환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내는 작업이며, 둘째는 더 나아가 신약의 예수와 바울, 공동 서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라며 “그리고 1세기와 16세기의 기독교회와 한국교회를 읽는 작업”이라고 했다.

◆디아스포라적 신자와 교회, 숙명이 지만 동시에 사명

마지막으로 발제한 김기현 박사는 “이 방 땅에서 애워의 노래를 부르는 법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편 29장)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 편지가 이후의 유배민들과 디아스포라의 삶과 신앙을 규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이 노래와 편지가 함축하는 것은 탈 국가, 탈 성전, 탈 계시적 상황에서도 성도와 신도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한편, 앞서 김명희 박사(전주대)의 사회를 시작으로, ‘별거벗은 인간 군상’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도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송태섭 원로 목사

수원경원교회 박창열 담임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7번길 36-11 Tel. 031-212-6929

침신대, 전국 20개 침례교회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 파송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 파송 예배 단체 사진. ©침신대



경로당 방문 봉사 모습. ©침신대



전도단원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편영민)가 지난 달 26~29일 3박 4일간 137명의 학생을 전국의 20개 침례교회에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으로 파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회지원전도단은 한국침례신학대학 교의 오랜 전통으로 지역교회와 함께 전도활동을 하는 수업 과정이다. 교회지원전도단 수업은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2, 3학년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교회현장에서 전도훈련을 철저히 받도록 함께 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개교회에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회의 영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회지원전도단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노인정 방문, 학교 앞 전도, 친구초청잔치 등 다양한 전도활동을 통해 전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침신대 11명의 신학과 교수들은 교회지원전도단원들의 활동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파송된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교회지원전도단 파송기간 동안 장지동 기자

아신대 신약학 김규섭 교수, 2023년 폴 악트마이어상 수상

비백인 학자 중 처음

아신대학교 신약학 김규섭 교수(사진)가 2023년 폴 악트마이어 상(The Paul J. Achtemeier award for New Testament scholarship)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아신

대학 10일 밝혔다.

아신대에 따르면 폴 악트마이어 상은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먼상(SBL, 구약학 신진학자 논문상), 프랭크 무어 크로스 상(ASOR, 고대근동 저작상) 등과 더불어 성서학의 주요한 학문 연구상 중 하나다.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의 학자들 중 1년에 한 명을, 응모한 논문을 바탕으로 미국성서학회(SBL)가 선정해 수상

하는 상이다. 2023년 폴 악트마이어상 선정 위원은 폴라 브레데릭슨(Paula Fredriksen), 제니퍼 누스트(Jennifer Knust), 매튜 린지(Matthew Rindge)다.

김 교수는 이번에 'The Concept of $\delta\alpha\theta\eta\kappa$ in Galatians 3:15-18(갈라디아서 3:15-18에 나타난 디아테케의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이상을 수상했다.

이전 수상자들은 캐빈 로우(C. Kavin

Rowe, 듀크 대학교), 제레마이아 쿠건(Jeremiah Coogan, GTU), 게릭 알렌(Gerrick Allen, 글래스고우 대학교), 코

트니 프리센(Courtney Friesen, 아리조나 대학교) 등이었으며 2022년 수상자는 영국 엑시터 대학교 교수인 로건 윌리엄스(Logan Williams)였다.

김 교수는 비백인 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이상을 수상했으며, 북미 혹은 유럽, 호주 등 서구 지역의 연구기관에 소속되

지 않은 연구자가 수상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규섭 교수는 2024년 SBL의 연례 학회(Annual Meeting)에서 해당 분야의 주요한 2-3명의 학자들의 논찬과 더불어서 해당 논문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광야교회, 11일 노숙인 월동점퍼 나눔 등 '광야인의 날' 개최



노숙인을 위해 기도하는 임명희 목사와 광야교회 신자들. ©임명희 목사

광야교회(임명희 목사)와 (사)사마에길을 내는 사람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고가 아래에서 '제24회 광야인의 날' 행사를 연다. 예배와 공연, 식사 및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안영화 흥보대사의 사회로 가수 강승모, 헤리티지, cbs라이어, 월드쉐어, 베고니아, 온누리키타임, 미드바르 콰이어 등이 출연한다. 미드바르 콰이어는 거리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단원이다. 후원자 윤준서 어린이는 부모의 용돈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발표한다.

노숙인들에게 월동 점퍼와 국밥을 제공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남서울교회(화종부 목사)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후원한 월동 점퍼 2000벌이 준비됐다. 지역 어르

신 및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질서유지에 나선다.

임명희 목사는 신학생 때 처음 영등포

로 광야교회를 세우고 노숙인 섬김 사업을 시작했다. 교회와 상담소를 통해 쌀과 의복 밀반찬 방 등을 지원하며 노숙인 쉼터를 운영 중이다. 노형구 기자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바른 묵상과 설교 위한 '마가복음 세미나' 열어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 주제로, 1차 20일 한우리교회 2차 27일 유튜브 방송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이하, 교신포)이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89회 포럼을 2회에 걸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1차 강의는 11월 20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담임 박홍섭 목사)에서 개최하며, 2차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방송 27일 저녁에 진행한다. 온라인 방송의 재

방송은 12월 3일 자정까지 시청 가능하다.

교신포는 "복음서 연구로 죽망받는 신학자이신 강대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신다. 이미 강 교수님은 타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 5시간 동안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올바른 말씀 묵상을 기대하는 성도님들과 성경적인 바른 설교를 소망하는 목사님들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강사인 강대훈 교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약학,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Th. M.)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Ph. D.)에서 신약학 전공했다. 그는 '마태복음 주석 상/하, 누가복음 통독주석, 마태복음의 하늘과 나라, 하늘에 서처럼 땅에서도' 등의 저자이며, '새창조 성경신학', '흔둔과 질서 성경신학', 하나님의 복 성경신학, '요한계시록 신학: 예언의 절정' 등의 저자이다. 이상진 기자



정읍제일교회, 정읍시에 소외계층 돋기 위해 백미 230포 전달

정읍제일교회(목사 강필원)는 최근 정읍시청에 7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230포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전달돼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제일교회는 1909년 정읍 최초로 세워진 110여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교회다. 올해 창립 114주년을 맞은 정읍제일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백미, 이불 등 해 연말마다 이웃돕기 물품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돋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제일교회는 2023년 10월 27일 7,000만원 상당의 백미 230포를 전달식을 마치고, ©정읍시

이학수 시장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LX hausys

결국 LX Z:in이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브

www.lxhausys.co.kr

“자유와 평화 수호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맞아 UN 참전국 자녀 육사 초청행사 열려
한기총, 육사에 안보 만화 ‘잊혀진 전쟁 6.25’ 1.300권 기증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흘린 고령의 유엔(UN)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다양한 보은 행사들이 진행됐다.

전 육군 참모총장인 KAFSP 김진영 회장(육사 17기)은 인사말에서 “오늘 진정한 게스트는 참전용사 자녀들이다.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한국이 어려울 때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그들은 세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깊은 이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전쟁 이후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국과 여러 세계 국가의 많은 도움으로 가장 발달된 국가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흘린 희생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의 미션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자유와 진실을 향한 협력을 진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북한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를 반드시 허락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한기총은 이날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과 전쟁의 참혹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을 사실적으로 정리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보 만화 ‘잊혀진 전쟁 6.25’ 1.300권(1,000만 원 상당)을 육군사관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서영 한기총 대표회장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참전 영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도 평화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생면부지 나라에서 목숨을 바쳐 평화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갚아야 할 것이다. 또 참전용사 후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고마운데, 이를

을 격려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사회나 군이 계속 좌경화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가운데 특별히 6.25 역사를 다룬 책을 육사에 전달하여 6.25의 정확한 진상을 알

려주기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화랑의식을 참관한 후 육사박물관 강당으로 이동하여 본 행사에 참여하고, 식사 교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 육군 참모총장인 KAFSP 김진영 회장(육사 17기)은 인사말에서 “오늘 진정한 게스트는 참전용사 자녀들이다.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한국이 어려울 때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그들은 세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깊은 이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알칸타라 알프레도는 “할아버지 마셜 벽토리아(Marcial M. Victoria)를 저는 사실 만나보진 못했는데, 사진으로 떠올리고 한다. 저희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이 나라를 위해 싸워주셨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전쟁 중 저희 할아버지가 세우신 업적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며 “저희가 평화의 시기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뿐 듯해할 것인지 상상해 본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참전용사 자녀를 대표해 튀르키예 출신 에런 일디림(Eren Yildirim), 필리핀 출신 알칸타라 알프레도(Alcantara Alfredo), 튀르키예 출신 알리이드 아신길(Ilayda Asimgil)이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한국을 위해 싸운 할아버지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참전 용사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겠다고 각오를 다져 감동을 전했다.

에런 일디림은 이날 “1933년 태어난 저의 할아버지 아멧 사나(Ahmet Sahna)는 저에게 언제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며 “할아버지는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셨고, 저는 대한민국 최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할아버지가 만나는 사진을 항상 보면서 자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제가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전쟁기념관에서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을 봤다. 그 순간 한

국 관련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아버지

아버릴 만큼 고통 속에서 사셨던 세월이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절대 잊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한국으로 할아버지를 데려오셨던 블랙티포드(Blatchford) 장군과 한국전쟁에서 무고하게 고통받았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었다”라며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치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보여주었던 희생, 헌신, 사랑은 참 대단했는데, 그래서 전쟁 이후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하셔서 자유와 번영,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했다.

일디림은 “할아버지가 2015년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셨던 둘을 가지고 2018년 한국에 다시 방문했다. 할아버지의 둘은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알칸타라 알프레도는 이날 “할아버지 마셜 벽토리아(Marcial M. Victoria)를 저는 사실 만나보진 못했는데, 사진으로 떠올리고 한다. 저희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이 나라를 위해 싸워주셨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전쟁 중 저희 할아버지가 세우신 업적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며 “저희가 평화의 시기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뿐 듯해할 것인지 상상해 본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일라이다 아심길은 “저는 튀르키예 출신이다. 아심길(Ilayda Asimgil)이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한국을 위해 싸운 할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참전 용사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겠다고 각오를 다져 감동을 전했다.

아심길은 “할아버지는 21일 동안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고, 1950년 12월 27일 군우리 전투에서는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순간에 종알이 할아버지 헬멧을 통해 옆으로 돌아나갔다고 하셨다. 그때 만약 그 순간에 헬멧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고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제가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전쟁기념관에서 할아버지가 한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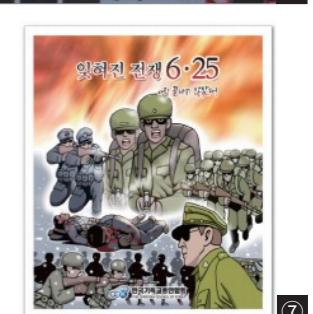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을 봤다. 그 순간 한

국 관련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아버지



6.25전쟁 UN 참전국 자녀 초청행사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 2023.11.3



①화랑의식 참관 이후 화랑대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②왼쪽부터 KAFSP 정성길 사무총장,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KAFSP 김진영 회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③육군박물관 강당에서 환영행사 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④튀르키예 참전용사 손자 에런 일디림이 인사하고 있다. ⑤필리핀 참전용사 손자 알칸타라 알프레도가 인사하고 있다. ⑥튀르키예 참전용사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이 인사하고 있다. ⑦이지희 기자 ⑦한기총이 육군사관학교에 전달한 안보 만화 표지

께 감사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전쟁이 한

라고 전했다.

Y-AKUS(한국연합회) 하은정 대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해서 저녁주신 분들이 바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달려오신 참전용사분들이었다”라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생명의 고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다. 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SDC 인터내셔널스쿨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담아 댄스와 영어 스페치,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한 영상 상영, 양상을 공연, 학장 공연 등을 펼친 ‘나라 사랑 콘서트’가 열렸다. 이지희 기자

행사 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와 미래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져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며 “금년이 첫 행사이인데, 계속해서 유엔 참전국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를 확대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절약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하니!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 kWh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 kWh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 kWh

**하루
1.09kWh
절감**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4% 절감



주1)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출처: 2020년 에너지총조사) 주2)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점검 전기요금계산기(주택용 저압, 기타계정, 전력기금 및 부가세포함)를 통해 산출

절약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 kWh/일	비데 온열기능 고기 0.1 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어서 0.09 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 kWh/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 kWh 한달 32.4 kWh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 kWh 한달 24.3 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 kWh 한달 16.2 kWh

김영길 목사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제2회 위 브릿지 첫째날 저녁 집회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마 11:29-30)

여러움을 겪고 있는 소형 교회들을 돋고 상생하는 길을 열기 위해 기획된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11월 6일 오후 2시 감사한인교회에서 그 막을 올렸다. 첫째날인 6일(월) 오후 2시에 박성호 목사(ANC 온누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의 개회기도, 이인규 대표(기독일보)의 인사말, 이건창 목사(발렌시아 샘물교회)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조별 모임 및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살롬 김 박사는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 강의를 이끌었으며, 이어서 조별토론, 저녁 식사 후 원하트 워십과 저녁집회를 이끌었다.

지동근 목사(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첫 날 저녁집회에서, 김영길 목사(TMF 대표)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마 11:29-30)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모인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에게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나누며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목회라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전하며 소망을 전했다.

“내 자신을 누군가 위에 놓으려 할 때 피곤해진다. 스스로 높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쟁의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겸손은 억지로 겸손하려 하면 그 보다 더 짚어지기 어려운 명예가 없다. 겸손은 노력이 아니다. 억지로 겸손하려 하면 더 곤혹다.”

그는 “겸손과 온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예수님의 명에는 사랑의 명이 있다”라며 “옛날에 제가 교단 충회장을 하면서 자주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다. ‘목사님, 왜 이 길로 들어왔습니까? 가서 진디만 깊어도 2만 불은 베는데, 사례비도 못받으시면서 일어 여분의 삶에 가장 보배로운 길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갑작스러움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목사님, 30분 설교하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예요?

그는 1983년 개척을 막 시작할 무렵, 지난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1983년에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아내와 저와 둘이 두 시간이 30분 청소를 하고 20달러를 받았다. 20 달러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슈퍼마켓에서 카트가 가득 채워진다.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반쯤되었을 때, 교인이 100명 쯤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안경 너머로 웃으며, ‘목

사님, 30분 설교하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예요?’ 저는 웃음이 안 나왔다. 그때 제가 받고 있는 사례비가 700 불이었다. 다우니에서 애들 둘과 제 아내와 네식구가 사는데 1200 soft 집 렌트비가 한 달에 천 불이었다. 굽고 살아도 절대 부족한 돈이 300 불이었다. 궁리하고 궁리하다가 LA 타임스를 배달하는 장소를 찾았더니, 한 달에 600불을 받으면 비오는 겨울이면 비닐을 씌워 배달하며 그것으로 300불 부족한 집값을 넣고, 심일조를 내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때였다.”

◆특별한 캐릭터 가득한 이민 개척교회

특별한 캐릭터를 지닌 이들이 가득한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며, 제직회의 때마다 ‘빨리 다른 목사님을 찾으라’고 했다. 한 번은 안수집사가 그를 교회 뒤로 끌어가더니, “목사님이 그만두신다 할 때마다 간이 붙었다 떨어진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만둬 버리세요.” 그 말에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민 오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성장의 임계점, 넘으려면 “제가 발견한 이유는, 한국인은 정이 많다. 10명이 모여서 개척하고, 2-30명이 될 때, 굉장히 가정적 분위기이다. 40~50명이 되면, 목사님이 바빠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섭섭함이 들어온다. 굉장히 이중적이 된다. 한편으로는 부흥이 되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하다. 옛 교회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떨어져 나간다. 빙산이 떨어져 나가듯 떨어져 나간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의 barrier는 넘어서기 힘들다. 넘어서는 길이 하나 있다. 1 미터 보자기를 네 귀퉁이에서 잡아 당기면, 평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방 5미터 정도 되는 보자기를 잡아 당기면 가운데가 죽어진다. 20미터 보자기를 잡아 당기면, 그 가운데는 땅에 땅게 된다.

◆특별한 캐릭터 가득한 이민 개척교회

“제가 발견한 이유는, 한국인은 정이 많다. 10명이 모여서 개척하고, 2-30명이 될 때, 굉장히 가정적 분위기이다. 40~50명이 되면, 목사님이 바빠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섭섭함이 들어온다. 굉장히 이중적이 된다. 한편으로는 부흥이 되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하다. 옛 교회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떨어져 나간다. 빙산이 떨어져 나가듯 떨어져 나간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의 barrier는 넘어서기 힘들다. 넘어서는 길이 하나 있다. 1 미터 보자기를 네 귀퉁이에서 잡아 당기면, 평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방 5미터 정도 되는 보자기를 잡아 당기면, 그 가운데는 땅에 땅게 된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교회안 갈등과 분란, 무엇으로 해결 가능?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처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이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섬김 목회로”

미주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제 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위 브릿지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도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 브릿지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돋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역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큰 교회들과 결연을 진행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목회자 및 사도를 위한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매년 진행해 작은 교회들의 목회사역을 돋는다.

컨퍼런스 첫 날인 6일은 먼저 베이커스 필드 ANC온누리교회 박성호 목사의 사회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진행됐다. 지난 1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처음 참석한 사역자들이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총 9개 조로 나눠 조별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목회에 대한 단상을 나눴으며, 조별활동은 컨퍼런스 3일 동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 첫번째 강의를 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비람교회,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는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 현황’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캘리포니아, 미주 전역에 퍼져 있는 신천지의 교세와 현황, 신천지의 교리, 온라인 전도 활동 등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지역의 신천지 교회는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어느 지역은 주소와 신천지 교회



유경재 목사



김귀보 목사



미주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제 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토마스 맹 기자



지난해에 이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참석자들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신천지이니 주의를 요청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성경은 봉함되어 있다.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다 △봉함된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만 열린다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재림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인자가 있다 △시대별로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그러면서 에스라 김 목사는 “바이블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든든한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성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성도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다”라면서 “1년 동안 구약학을 테스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연구를 지속하며,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다. 대학에서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끌고 담임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고했다.

이어 그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목사는 강의식 성경 공부의 문제점, 나성북부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모임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

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대학교 3, 4학년 때에 주석책을 공부해가며 신입생들을 바이블스터디로 인도하는 사역을 7년 동안 했다. 4년 동안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끼고 신학대 3년을 마치고, 포괄적인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다”라면서 “1년 동안 구약학을 테스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연구를 지속하며,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다. 대학에서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끌고 담임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고했다.

이어 그는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2세들 90% 가, 외국인 99%가 신천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12학년 때부터는 이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세번째 강의자로 나선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유 목사는 먼저 신앙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

마지막으로 유 목사는 “팬데믹 동안 목회가 힘들었지만 ‘줌’을 통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회에서 모였는데 수가 적었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모이는데 성도들이 반반씩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이 늘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지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진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들이 미적자로 했었는데 새롭게 접근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공부를 해오면서 2명이든 3명이든 함께하면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리티브 설교- 부제: 믿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의를 이끈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는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번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라며 무엇보다 목회자는 다른 분

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구전으로 계승되던 이야기가 문자화되면서 축약·요약되고 사공간의 임체성을 잃고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문자화 과정을 거치며 상실된 시공간의 임체성을 회복하고, 저자와 원 저자가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던 내용들을 발견해 현재의 저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다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저자, 그리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축약되고 시간과 공간이 평면화되었다. 원래 저자와 독자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임체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우리 같은 독자와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 원 독자, 원 저자와 현재의 독자와 저자 사이에는 굉장한 고리가 있다.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성경을 읽어도 자연스레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김귀보 목사의 내리티브 설교에 따르면,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말씀 연구하고 해석하고, 문자화 경전화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히 행사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헤어컷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참석자들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꿈’이었다. 한 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언제부터인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장례식장을 향해가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기성교회를 섬기고자 했다.

지난 주 52주년 예배를 드리고 어느덧 2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해 온 권준 목사는 여려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시도할 때 반대가 커다.

하지만 감사한 것이 교회의 문화이다. 변화를 시도할 때,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떻 게 이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신다. 80년은 장로님은 너무 잘 했다고 격려해주셨고, 한 성도님은 만 불을 영어예배를 위해 헌금하셨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꿈꾸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시금 꿈을 꾸기 바란다. 혹시 고난 가운데 좌절된 꿈이 있다면 결국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당신만을 의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나가자”고 했다. 김민선 기자



권준 목사(시애를 형제교회)가 제 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폐회예배에서 말씀을 전 했다. ©미주CGN

위 브릿지 폐회예배 ‘좌절된 꿈을 회복하라’

제 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은혜와 감동, 연합의 마무리

본보에서 주최한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제 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는 ‘좌절된 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마무리 됐다.

마지막 날인 8일 폐회예배 말씀을 전한 권준 목사(시애를 형제교회)는 “하나님께 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꿈을 넣어 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 우리 안에 이 꿈이 역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꿈이 임하면 고난도 따른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왜 고난이 따르나? 이유는 다 알 수 없

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꿈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모시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당시를 간증 했다. 권준 목사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꿈’이었다. 한 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언제부터인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장례식장을 향해가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기성교회를 섬기고자 했다.

지난 주 52주년 예배를 드리고 어느덧 2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해 온 권준 목사는 여려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시도할 때 반대가 커다.

하지만 감사한 것이 교회의 문화이다. 변화를 시도할 때,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떻

게 이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신다. 80년은 장로님은 너무 잘 했다고 격려해주셨고, 한 성도님은 만 불을 영어예배를 위해 헌금하셨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꿈꾸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시금 꿈을 꾸기 바란다. 혹시 고난 가운데 좌절된 꿈이 있다면 결국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당신만을 의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나가자”고 했다. 김민선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 부담 없는 실투자금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청약통장 무관

Harrington Tower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일찌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상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 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2.6미터 층고+2룸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예정)

하우스키핑, 펫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급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 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다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세대, 경관조경, 육상장식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 맷 데이먼, 매각 위기 뉴욕 교회 구하기 위한 투쟁 동참

헬리웃 배우 맷 데이먼(Matt Damon)과 마크 러팔로(Mark Ruffalo)가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Upper West Side)에 소재한 역사적인 교회가 개발자들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동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신자 12명이 출석하는 웨스트파크 장로교회(West Park Presbyterian Church)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교회는 3천만 달러 규모의 고급 콘도를 건설하기 위해 철거하려는 개발자들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로마네스크 리바이벌(Romanesque Revival) 건물에 위치한 비영리 지역 공연 예술 센터인 '웨스트파크 장로교회'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예술 센터는 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장소 대여나 보육센터와

크센터(The Center at West Park)에서 오는 11월 16일 연극 'This Is Our Youth' 공연을 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수리비 2백만 달러(약 26억원) 때문에 2022년 콘도미니엄 개발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예배 공간이 포함될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해 건물의 랜드마크를 해제하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랜드 마크 보존 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는 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장소 대여나 보육센터와

같은 교회의 대체 소득 창출 용도를 제안했다고 뉴욕포스트(New York Post)가 보도했다.

한편, 데이먼과 러팔로 외에도 웨델 피어스(Wendell Pierce), 코미디언 앤미 슈머(Amy Schumer), 래퍼 겸 배우 캐먼(Cameron) 등 다른 유명 인사들이 건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스타 파워를 쏟았다.

연극 'This Is Our Youth'를 집필한 극작가 케네스 로너건(Kenneth Lonergan)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먼에게 미시 애이거(Missy Yager)와 러팔로(Ruffalo)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출연진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에 출연했던 조쉬 해밀턴(Josh

Hamilton)이 출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너건 작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즉시 '나도 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난 그가 가능하면 할게라고 말할 줄 알았다. 사실 과거에 그는 약 1~2년 정도 그 교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었다"라고 했다.

로너건 작가는 "2002년 두 달 동안 런던 프로덕션에 출연해서 이미 그 연극을 알고 있던 데이먼은, 이 동네의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먼의 공연 티켓은 500달러(약 65만원)부터 시작하지만 11월 17일 두 번째 공연의 최고 가격은 250달러(약 32만 5천원)에 불과하다. 공연 둘째 날 일부 좌석은 고정된 입장료가 없고,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웨스트파크센터는 "우리 이사회는 이 중요한 NYC 랜드마크를 지역 주민과 NYC 공연 예술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웨스트파크센터는 활기차고 번성하는 예술 및 문화의 허브다. 2017년부터 이 센터는 15,000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3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지역사회가 또 다른 력셔리한 고층 개발이 아닌 예술과 문화에 더 접근하기



웨스트파크장로교회. ©위키피디아

쉽고 포용적인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유권자 54% 네타냐후 총리에 긍정적… 68% 휴전 반대"



2023년 10월 28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페이스북

응답자 대해 조사했다. 공화당 응답자의 70%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한 반면, 민주당 응답자의 48%는 같은 답을 했다. 무소속 응답자의 60%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감을 보였다.

하마스의 10월 7일 학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군대의 대부분을 주둔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가해 수많은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따르면 1만여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CP는 전했다.

바라바 리프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사망자 수가 현재 언급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리프 차관보는 "이 분쟁과 전쟁 상황에서 사상자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솔직히 우리는 그 수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인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총소리가 조용해진 후에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어떤 수치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리프 차관보는 또한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유권자의 50%가 이스라엘에 더 많이 공감하며, 응답자 중 18%는 팔레스타인에 더 많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23%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 차관보는 정당 지지에 따른

또한 응답자의 68%는 "휴전은 하마스와 테러에 항복하는 것과 같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으며, 21%는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1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라스무센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유권자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 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유권자의 50%가 이스라엘에 더 많이 공감하며, 응답자 중 18%는 팔레스타인에 더 많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23%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무센 보고서는 정당 지지에 따른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면서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조 맨친 의원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에 중도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맨친 의원이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출마시키려 노력해온 노 레이블스(No Labels)라는 단체와 1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맨친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노 레이

EU,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제공 위해 더 많은 항공편 편성

유럽연합(EU)은 가자 지구에 필요한 구호품을 공급하기 위해 6개의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적 인 공중교교(air bridge) 비행이 앞으로 며칠 동안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 중 두 편은 이번 주 금요일(10일)과 토요일(11일) 이탈리아 남부 브린디시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EU로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된 55t의 물품을 운송한다.

루마니아가 기증한 텐트와 매트리스를싣고 다음 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3편의 항공편이 추가로 출발한다.

또 EU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항공편은 유엔기구와 기타 인도주의적 협력국들의 물자를 수송하며, 이달 말 벨기에 오스텐트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조치로 지난 몇 주간 총 EU 공중교교 비행 횟수가 14회로 늘어났으며, 가자 주민들을 위한 550t 이상의 긴급 지원이 라파 국제 통과 지점에 신속하게 배치되기를 위해 이집트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EU 지도부는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우르줄라 폰데아라 이엔 EU집행위원장은 6일 EU 대사들에게 "가자지구의 막대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고 말 했다.

야네즈 레나르치치 EU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10일 세계가 현재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은 "인도주의적 자금 지원을 4배로 늘리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고 불안전으로 인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해상 화물을 포함한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다른 경로도 마련하고 있다고 폰데아라리아엔 집행위원장이 10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WSJ "미 민주당 맨친 상원의원 대선 출마 가능성 크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보수색 강한 중도파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면서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조 맨친 의원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에 중도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맨친 의원이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출마시키려 노력해온 노 레이블스(No Labels)라는 단체와 1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맨친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노 레이

블스의 1순위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76살인 맨친 상원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전국을 여행하며 중도층 중심으로 미국인들을 단결시키는 운동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노 레이블스 후보가 출마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강영진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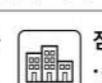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체크 예입펀드
• 소상공인 차명업자 새출발기금



김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통 저활용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 홈페이지 www.kamco.or.kr | 문의 1588-3570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Hana Financial Group supports Busan's Bid to host the World EXPO 20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대화 내용 자동 통역”… AI 폰 비서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통화 내용을 실시간 번역해주는 거나 이용자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손 안의 만능비서’ 시대가 열린다.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로 최초의 AI 폰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 애플도 내년 아이폰16 시리즈에 AI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A.I.)’을 필두로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AI’, 전화 통화 실시간 통역해준다…내년 갤럭시 S24부터 도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와 갤럭시 AI 등을 기반으로 향후 출시될 제품들에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 AI 포럼에서 공개된 삼성 가우스는 마신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언어 코드 이미지 모델 등 3가지로 구성된다. AI가 자동으로 메일 작성이나 문서 요약,

번역 등을 도와주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코딩까지도 대신해줄 전망이다. 이미지 제작이나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맡아준다.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를 향후 출시

될 제품에 단계적으로 탑재하겠다고 밝

표했다. 첫 타자는 1월 출시 예정인 갤럭

시 S24가 유력하다.

삼성전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AI’다. 일반적인 생성형 AI처럼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되는 기능과 스

마트폰 기기가 AI를 지원하는 기능을 합

쳐 그 자체로 똑똑한 스마트폰을 만든다

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공개에 앞서 이

같은 AI 기능의 일부를 사전 공개하기도

했다. AI가 자동으로 통역을 해주는 ‘실시

간 통역 통화(AI Live Translate Call)’ 기

능이 대표적이다.

갤럭시 AI 폰으로 전화를 걸 때 편하게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갤럭시 AI가 실

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 전달해준다. 상대방이 갤럭시 AI 폰이 아니어도 되고,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폰 자체에 AI가 적용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생성형 AI를 통해 시리가 보다 복잡한 명령에도 응대할 수 있게 하고, 메시지애플 뮤직 등에도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팀 루 애플 CEO(최고경영자) 또한 3분 기회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AI는 그간 모든 애플 제품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이었다”며 “아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생성형 AI에 관해 애플이 분명히 진행 중인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꽤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투자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애플 제품의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내년 업데이트될 차

용해왔다.

모바일 분야에도 AI 열풍이 찾아온 만큼 자체 개발 생성형 AI로 더 고도화된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생성형 AI를 통해 시리가 보다 복잡한 명령에도 응대할 수 있게 하고, 메시지애플 뮤직 등에도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팀 루 애플 CEO(최고경영자) 또한 3분 기회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AI는 그간 모든 애플 제품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이었다”며 “아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생성형 AI에 관해 애플이 분명히 진행 중인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꽤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투자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애플 제품의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내년 업데이트될 차

세대 운영체제(OS)인 iOS 18, 아이패드 OS 18 등을 통해 자사 제품에 새로운 LLM(대규모언어모델)과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AI 기능이 OS 업데이트를 통해 전작들까지 모두 적용될지, 내년 출시될 아이폰16에 만 독점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에이닷’ 등 이통사 AI 서비스도 고도화 추세…“스마트폰 도약 내년부터 시작”

이동통신사들도 최근 AI 기술을 휴대 전화에 빠르게 접목하고 있다. 통화녹음, 요약 등 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가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는 AI가 통화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통화유형과 요약까지 제공해준다. 특히 에이닷은 기존에 통화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가능하게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AI가 통화를 녹음해줄 뿐만 아니라 통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한 줄 요약, 통화 문단별 상세 요약, 통화별 대표 태

그, 통화 종 언급된 일정·전화번호·계좌번호 등 패턴에 대한 AI 제안 등까지 생성해준다.

에이닷은 이같은 커뮤니케이션 AI 뿐만 아니라 수면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실시간 통화 통역, AI 증권뉴스, AI 모션 프로필 등의 추가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KT, LG유플러스는 주로 B2B(기업간거래)에 초점을 둔 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나 이들 또한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위한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앞서 공개한 통화 통역 기능처럼 상상 속에 있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내년부터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현성 기자

윤, APEC 계기로 IPEF 정상회의 참석… 협력 계획 논의

IPEF 14개 참여국 정상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

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1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참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같은 기간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

가폴 등 IPEF 14개 참여국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IPEF 참여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해당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

1(무역), 필리3(정정경제), 필리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소리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VI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o,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불상사정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시를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 바랍니다. ■ 상담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신용평가 점수,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 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2b-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 국민카드

최태원 “노소영, 언론 플레이 유감… 증오 유도 말라”

노소영 관장과 이훈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2일 “노 관장 아트센터 나비(ナビ)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경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카운터였다.

노 관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풀드엑스 개막식에서 기자와 만나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약약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십 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훈이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그럼에도 노 관장과 이훈은 계약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재산분할 소송 2라운드 돌입…SK 주식 항방 주목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훈 판결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훈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체배우자라는 이유로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열리는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다투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

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훈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 수준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제가 1심에 대해 항소한 것만 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의 새로운 진화 과정, (여성의 내조 가치를 인정받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자료부동산 퇴거 등 법정 공방 잇달아

노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항소심의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기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시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아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변론일은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노 관장은 이훈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해당 소송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했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인준 기자

이스라엘군, 민간인 대피 강조하며 “가자서 하마스 통제력 상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지지구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공군과 해군 지원을 받으 기자시티 알사리 난 민촌에서 적전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민간인이 테러 단체(하마스)의 지역에 반해 가지지구에서 대피하면서 하마스가 가지지구 북부에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대로라면 전쟁이

어느 정도의 지점을 지난 것이다.

그는 “오늘 가지지구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다. 알사리 방원에는 포위 공격이 없다. 재차 말하지만 포위 공격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원 동쪽은 방원을 떠나려는 가지지구 사람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열려있다”라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사리와 방원과의 경계는 하마스가 가지지구 북부에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직원과 정기적으로 직접 대화하고 있다. 알사리와 병원 직원은 내일 소아과에 있는 아기가 더 안전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 “하마스는 36일 동안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유아 239명을 인질로 잡아 왔다”라면서 “특히 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며, 세상이 이를 잊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동 기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강제북송 주체는 명시 안 해

다만 회원국들에 고문방지협약 준수 등 권고

유엔총회(UN)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8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결의안 초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등한 시한 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

하고,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강력히 권고한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회원국들에 “국경 간 여행 재개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농르풀망)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외에 고문방지협약의 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공동체안국으로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문방

지협약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상당히 중

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에 따르면 황 대사는 “고방문자협약이 왜 중요하나면 고문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 고문당하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된다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은 제3조 제1항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이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VOA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 협약은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유엔본부와 워싱턴을 방문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중국의 관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비대위의 이한별 위원장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중국을 호명하지 않고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

계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사태를 확실하게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명백히 목소리를 내야 할 유엔 결의안마저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 이런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 국회, 對中 의회연합 IPAC 32번째 회원국 된다



지난 9월 열린 IPAC 프라하 총회에 참석한 지성호 의원(맨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지성호 의원실

한국 공동의장에 지성호·오영환 의원

IPAC(대한국과 의회 간 연합체)가 9일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10일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원

부각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 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성호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

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러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성을 다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 활동” 조해진 의원에 감사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흥순철)가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9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패는 연구소 문지호 부소장이 이날 조 의원을 면담한 뒤 직접 전달했다.

연구소는 ‘Stand up for Life’ 고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이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마다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구소는 이 패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의 모습은 모든 프로라이브 빌더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제정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문지호 부소장(왼쪽)이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차별금지법이 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 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달 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다”며 “그런데 그중에 한 분과의 위원을 두고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을 위원에 임명했다”고 규탄성 명서를 냈다. 또 이를 받아서 지지하는 진보좌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인물은 현재 복음언론 인회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카페(차바야) 운영을 맡고 있는 전 KBS 보도본부장 출신의 김인영 회장”이라며 “김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전해왔었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심위가 김 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내용’ ‘특정종교(기독교)를 바탕한 단체 임원’ ‘반페미니즘’ 표현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태세”라며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 과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애 독재’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언론회는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혐오이고 인권침해인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인 인권이다. 그것은 절저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동성애가 천부적인 인권이 되었는가?”라며 “이것은 인간들의 폐리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동성애만 옹호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방심위 특별 분과 위원에 들어가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월수 · 2023.10.23 기준

**현열하는 당신이 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현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미국 플로리다 법원, 남학생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판결

미국의 플로리다 법원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 조치가 트랜스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판사 로이 K. 알트만은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체육 부문에서 여성의 평등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모든 성별에 기초한 분류가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알트만은 “남성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체육 기회에서의 역사적(그리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정부는 여성 학생들을 위한 체육 기회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전국의 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알트만은 또한 이 법이 성전환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해당 법의 내용이나 제안자가 명시한 의도에 악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모든 성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훈성 또는 다양한 성별 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은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들이 남성 스포츠 팀에 출전하여 경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만일 이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에게 차별을 의도했다면, 그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썼다.

2021년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성 스포츠 공정화 법’(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으로도 알려진 상원법안 1028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후원하는 여성 스포츠 행사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드산티스는 당시 성명에서 “플로리다의 모든 소녀들이 운동 경기에서 젊은 여성

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얻도록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은 운동 경기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왔다. 우리는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 기회들이 잡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법이 서명된 직후,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트랜스젠더 중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법이 차별적이 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문서에 ‘DN’으로 확인된 여성 대

명사를 사용하는 이 학생은 자신이 초등

학교 때부터 여자부 경기에 참여해 왔고, 11세부터 성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그녀에게 이러한 기회를 빼앗는 것은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자의식을 약화시켜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N.)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경기를 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어떠한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감정적 및 심리적으로 그녀를 지원해 온 팀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 김 기자



2022년 11월 선거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연설을 하고 있다. ©론 드산티스 X(구 트위터)

히잡 없이 병원 못 간다?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옥중 단식투쟁

모하마디 가족 “히잡 거부해 검사가 병원 이송 막아”



이란에서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사진)가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란 인권보호센터 부소장 나르게스 모하마디(51)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한 달 만에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그의 가족이 밝혔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그가 “아픈 수감자들에 대한 치료를 미루고 방치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와 이란 여성들에게 ‘죽음 또는 히잡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디는 심장질환과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사가 병원 이송을 막고 있다고 그의 가족은 전했다.

또 교도소 관계자들과 사법부에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이 모하마디가 일주일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교도소의 다른 여성 수감자들이 모하마디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법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끝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하은 기자

미종교자유지수 1위 일리노이… 최하위는 웨스트버지니아

미국의 50개 주에 대한 ‘종교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일리노이가 가장 많은 종교적인 자유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종교, 문화 및 민주주의 센터는 지난주 미국의 두 번째 연례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 자유를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의 수로 50개 주 전체의 순위를 매겼다. 2022년에는 미시시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일리노이가 획득한 종교 자유지수 85%는 지난해 81%보다 상승했다.

미시시피는 작년에 82%에서 올해 64%를 받아 종교 자유 보호 부문에서 4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캘리포니아는 올해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웨스트버지니아가 최하위로 내려왔다.

반영된 점수는 종교적 이유 또는 사유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여부, 의료 제공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불임 시술 및 고임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에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공무원 및 영리 기업이 동성 결혼식 참여나 주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학령기 아



동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 거부가 가능한 여부도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

일리노이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 낙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 조항과,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외한 모든 종교 자유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리노이는 영리 기업이 동성 결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올해 14%의 점수를 받은 웨스트버지니아는 종교 자유 보호 조항 중 7개만 갖추고 있다. 이 주는 고용주가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피임 보장을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하며, 개인이 응급 의료 상황을 포함하여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개인, 사립 및 공립 병원이 불임 시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 책임에서 면제된다.

일리노이 외에도 50% 이상의 점수를 받은 12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67%), 뉴멕시코(66%), 미시시피(64%), 오하이오(64%), 워싱턴(62%), 아칸소(61), 플로리다(60%), 메릴랜드(57%), 펜실베이니아(55%), 유타(55%), 테네시(51%), 델라웨어(50%)가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며, 건강 보험 의무로부터 피임 관련 보장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는 하와이, 조지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베지니아, 뉴저지, 미시간, 콜로라도,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등 14개 주이다.

그러나 50개 주의 절반 이상은 종교 인들이 종교적 양심을 침해받지 않도록 고안된 종교자유회복법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해당되는 주는 오하이오, 워싱턴, 메릴랜드, 유타, 델라웨어,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위스콘신, 오리건은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가장 많은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어떠한 종교 자유 보호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종교 및 의식 생활에 대해 가장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주는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워싱턴, 메릴랜드, 유타, 델라웨어, 하와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조지아, 아이오와 및 오리건이다. 반면 미시시피, 텍사스,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

유진 김 기자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위라밸, 패러설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형과 패러설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1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7억 1,900만 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다.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실태성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 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런 면제로 투자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 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

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뚜렷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경관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858-9800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금원설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

*상장 CCI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우기 위하여 일부 주장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재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읽으라, 들어라, 행동하라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9절
설교: 달라스 큰나무교회
김귀보 목사

제2회 위 브릿지 콘퍼런스(WE BRIDGE CONFERENCE) 모든 강의가 큰 영감과 도전을 줬다. 그 가운데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 러티브 설교- 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의를 이끈 테사스 큰나무교회 김귀보 목사의 ‘말씀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설교자의 말과 생각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내러티브 설교’ 전문을 옮긴다.(편집자 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다. 가나안 땅에는 7개 부족과 31명의 왕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문제와 대적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야기만 아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와 사건을 아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담긴 책이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복음으로 이겨야 할 7개 부족과 31명의 왕들이 존재한다. 우리 인생, 가정,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하는 문제와 사건들이다. 이런 문제와 사건을 이기려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싸워 이어야 한다. 여호수아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한계와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좌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야기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다. 1절-2절을 보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두번 강조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인물이었다. 모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다. 모세는 능력을 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죽어버렸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든든한 뒷배가 사라져버렸다는 말이다.

운동경기에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가 예선전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본선이고 결승전이다.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 7개 부족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적들이다. 그런데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전선수인 모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모세의 죽음은 희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과 실패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2절)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정복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 기하시는 것 같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을 이야기 하신다. 실패에서 가능성은 이야기 하신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시작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고 가능성이고,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으셨다. 3절과 4절을 보자. 광야는 남쪽경계다. 레바논은 북쪽경계다. 유브라네는 동쪽경계다. 대체는 서쪽경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동서남북 한뼘의 땅도 줄이지 않고 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두려워 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이다. 모세가 소망을 주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던 것을 좀 잊어 버려도 괜찮다. 몇 번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다. 하는 일이 좀 막히고 있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계신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계신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마음만 있으면 된다.

힘을 잃고, 두려워 하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5절을 보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는(10가지 재앙) 두손 두발 다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다. “보라 천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암미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리라.”(마1:23)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모두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11. 또 증거는 이 것이니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큰나무교회)가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의 네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 러티브 설교- 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의 강사로 서, 성경의 시간과 공간의 입체성이 살아나는 내 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설명했다. ©기독일보

일으켰던 기적을 너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모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말이다. 모세의 죽음이 더 이상 타격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과 광야40년은 모세가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나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겠다는 말이다.

두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봐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자제로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신다.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자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비취지 않는 공간이 없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상대할 대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문제든, 그것이 영적인 존재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처음에는 바로가 비웃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면하고는(10가지 재앙) 두손 두발 다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다. “보라 천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암미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리라.”(마1:23)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모두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11. 또 증거는 이 것이니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

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모든 결정에 예수님의 관여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선언이고, 선포이다. 이런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난다. 그런데 선포와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 6절과 7절을 보자.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이야기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한 뒤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 낙심케 하는 문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말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다.

문제를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이 8절이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이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와 비교하면서 힘들게 하겠는가? 여호수아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는가? 감당하기 벅차운 적들이 얼마나 고롭겠는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모세가 있었으면, 내가 모세가 아니라서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자신감과 담대함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불들며 불들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자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9절을 보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와 싸워우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한다.

고, 선포하고, 대적기도하면서 이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짓된 감정에 속는다. 거짓된 감정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아서나니.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 하리이다.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즉 두려워 하셨기에 삼킬 수 없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거짓 두려움이 물밀듯이 물려들었다. 그때 다윗은 그 거짓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고 선포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두려움을 깨뜨리는 확신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즉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고 외치는 승리의 외침이 얼마나 멋진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8절) 말씀 안에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펴들고 읽고 자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

문제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내가 뭔가를 궁리해서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면 더 큰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자신감과 담대함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불들며 불들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자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9절을 보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와 싸워우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한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30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헤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진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통증, 관절통, 신경통, 유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동성애자는 많은가?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일반 인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확히 조사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문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다.

한편 1973년 동성애가 "정상화"된 이후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킨제이 보고서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 서구에서 전체 인구 중 게이는 2~4%, 레스비언은 1~2%로, 도합 인구의 2% 내외로 보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몇몇 소규모 연구들에 이어, 1994년 전국여론조사센터(NORC)가 실행한 대규모의 "국민 건강과 사회 생활 설문조사"가 있었다. 여기서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또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 비도가 대략 1%에서 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지남의 3가지 상태(끌림, 행동 및 정체성)에서 모두 전적인 동성애자는 남자 37%, 여자 13%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가 "동성애자"는 아니다. 반면 전적인 동성애자는 4%였고, 적어도 지난 3년간 다소간 전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10%라 하였다. 이런 데이터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이 예상보다 많구나 하

는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동성애자들은 대중을 향해 동성애자는 인구의 10%라고 반복 말하여, 이후 항간에 동성애자가 인구의 10%라는 "신화"(10% myth)가 퍼졌다. 이런 홍보활동은 동성애자 수가 많으므로

동성애가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 셈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킨제이가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에 동성애자나 창부나 좌수나, 자원자들을 많이 포함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는다.

한편 1973년 동성애가 "정상화"된 이후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킨제이 보고서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 서구에서 전체 인구 중 게이는 2~4%, 레스비언은 1~2%로, 도합 인구의 2% 내외로 보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몇몇 소규모 연구들에 이어, 1994년 전국여론조사센터(NORC)가 실행한 대규모의 "국민 건강과 사회 생활 설문조사"가 있었다. 여기서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또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 비도가 대략 1%에서 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지남의 3가지 상태(끌림, 행동 및 정체성)에서 모두 전적인 동성애자는 남자 37%, 여자 13%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가 "동성애자"는 아니다. 반면 전적인 동성애자는 4%였고, 적어도 지난 3년간 다소간 전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10%라 하였다. 이런 데이터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이 예상보다 많구나 하

을 종합한 결과, 남자의 2.8%, 여자의 1.4%가 자신들이 게이, 레스비언, 또는 양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의 0.9%, 여자의 0.4%가 18세 이후 전적으로 동성애 파트너만 가졌다고 하였다.

2006-2008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실시한 전국 차원의 조사에서 동성애자의 비도는 1.4%, 양성애자의 비도는 2.3%였다(트랜스젠더 포함하면 3.8%)

2010년 화이트헤드가 198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동성애 비도는 게이 약 1%, 레스비언 약 0.6%, 전체 약 0.8%이다. 또한 남성 양성애자와 게이를 합하면 약 2.9%이고, 여성 양성애자와 레스비언을 합하면 약 1.8%이고, 전체 약 2.4%였다.

2014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의하면 18세 이상 남녀에서, 동성애자는 1.6%이고, 양성애자는 0.7%로, 전체 2.3%였다.

그리하여 킨제이 보고서의 동성애 비도는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킨제이 옹호자들은 킨제이는 분명히 "남자의 4%, 그리고 여자의 2~3%가 평생에 걸쳐 동성애로 산다"고 말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마저도 이후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너무 높게 본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동성끌림을 보고하는 비율이 15% 정도라고 하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8%로 줄어든다. 그런데도 사춘기를 끝내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청소년들 대부분은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바꾼다. 즉 성지남은 유동적(fluid)이다.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 동성애자들

은 젊은이들에게 많고, 젊을수록 양성애자가 많고, 농촌지역보다 도시에 많고, 이성애자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경제적으로도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수입이 더 많다.

이런 역학 연구들의 합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가 사회에 많기 때문에 그들을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어느 정도 동성애를 빈번하게 해야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상당수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이성애도 하고, 이성애자도 가끔은 동성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 척도》의 스펙트럼 개념은 성지남에 유동성(fluidity)이 있음을 암시한다. 유동성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레스비언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유동성 인정은 중요하다. 동성애가 유동적이라면, 동성애가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전환치료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킨제이도 실제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바 있다 한다.

③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간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동성간 섹스를 말한다. 동성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해도, 성적 끌림과 성교 행위가 없으면 동성애가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동성애 관련 조사연구들은, 정의가 애매한 "동성애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 "동성애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수가 많다. 이로써 혼란스런 양성애의 정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

④ 남녀차이, 성별 차이, 거주지 그리고 교육과 경제 수준 등에 따른 차이 등등은, 동성애 원인이 선천성이라기보다 "환경의 영향"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동성애 이슈가 신문, 영화나 드라마, 또는 토크쇼 등 미디어에 자주 등장함으로, 동성애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눈에 자주 띠면(visibility)의 속해지고, 그러면 동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동성애를 시도하게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100% 동성애자들에게 이성과의 섹스가 전혀 불가능할까? 적어도 킨제이의 스펙트럼의 개념을 따르면, 아니라고 본다. 동성애자는 "본능적으로 태어난 이성애의 능력"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성을 향해 (orient) 지닌다. 성지남과 유동성으로 향하게 된 사람인 것이다. 프로이트의 언급대로 그들에게 이성애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성지남 문제에 더욱 복잡해 진 것은, 얼마전 무성애(asexuality)가 성지남의 하나로 등장한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범성애(pansexuality), 트랜스젠더나 퀴어를 향한 성적 지남(skoliosexuality 등등) 같은 더 괴이(queer)한 개념들이 속속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성지남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다.

반복 말하거니와,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었음을 믿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도시화와 "진보적 교육"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해 진지하기보다, 점점 더 제멋대로, 점점 더 흥미와 흐트러움으로 생각한다. 그틈에 비자연적이고 비생산적인 섹슈얼리티가 전파되고 있다. 인류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구원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4)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



4. 결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어떤 일을 하면서 확신(assurance)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지금에서 전국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 다리를 떨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대개 고소공포증이나 비행기가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사실보다 비행기 추락을 먼저 떠올리므로 극심한 불안증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사고율이 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

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한편으로 이 확신은 우리는 절대로 이전처럼 방탕하거나 타락한 사람을 살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굳센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베후 1:3~4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보람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신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사고율이 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확신에서 멀어져 있다 해도 두려워 미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잠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아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신의를 저버렸을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란 하나님께서 태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

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아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롬 11:26~27)

특히 호세아서에는 패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묘사되었습니다.

"에브리임이여, 내가 어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11:8)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14: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정으로 곤란함과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어"라며 주눅이 들어 계십니까?

그래도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남았거

든 지금 즉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성령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간구를 외면하지 않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기록으로 이 교훈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매조지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배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0~11) <계속>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 한국수자원공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반성경적 조항들의 문제점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약리학교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은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며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인권 NAP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 즉 다양한 성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날 뿐더러 잘못된 인권으로 양성질서에 근거한 우리나라 사회질서의 근간을 훼둘 수 있다. 4차 인권 NAP 안이 발표되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 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전국연합(전평연), 전국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많은 기독교 단체가 여기에 포함된 젠더 이념 강화,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나쁜 요소들(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삭제를 촉구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인 2001년 “유엔 인권 조약기구”的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유엔의 부설기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즈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NAP 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인권 NAP (2007~2011)를 제정한다. 이후 5년마다 2차(2012~2017), 3차(2018~2022) 인권 NAP가 제정되었고 이것은 국

과거 한 집회 참석자들이 제4차 NAP 초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독일보DB

기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지난 정권 때 제정된 3차 인권 NAP에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가 강조된 정책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지난 5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이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며, 인권 NAP 작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인권 NAP은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모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해 정하는 것이다. 4차 인권 NAP는 올해 12월 협의회에서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구성된 전문가들과 그 위원회의 의견에 의존하여 만들었기에 3차 NAP와 별 차이 없이 성 혁명 이념의 집행을 각 부처가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그 속에 포함된 반성경적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

는 행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령 속에 그런 내용들을 넣겠다는 계획이 인권 NAP에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8월 작성하여 정부에 보낸 권고에 따라 각 부처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실질화, 성 인지(다양한 젠더 인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 평등 미디어 교육 및 캠페인, 다양(동성혼, 동거) 가족 인정; 2)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양성이 아닌, 그래서 다른 젠더 포함) 문화콘텐츠 실천 확산, 청소년 조기 성교육(성적자기결정권); 3) 법무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합리적 의견제시, 인권정책기본법안 마련; 4) 방송통신위에(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 표현 방지; 5) 경찰청 규칙에 잘못된 성평등, 인권정책 수립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유엔산하 인권기구의 잘못된 인권 기준이 경찰에 교육되도록 하는 규정, 외부개방형 인권정책관 제도 신설(인권단체가 경찰을 제어하려는 시도); 6)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절 관련 법 정비, 중절 약품 허용, 유니버설 디자인(성중립 화장실 설치); 7)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인권단체 지원, 등의 문제점을 가진 내용들이 제4차 인권 NAP 속에 들어있다.

제4차 인권 NAP가 현재 발표된 안의 내용대로 확정되면, 성 혁명 이념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통과되어 5년간 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4차 인권 NAP가 이대로 확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미 밝혀진 반성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거센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침묵으로 현실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면 안된다. 주변에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소한 현안들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선택하여 국면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성 혁명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되돌리자면, 기정과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 문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난 현상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성경적 가치수호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고 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의 문화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끼어나고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만 받던 상황을 역전시켜 복음의 문화를 전파하는 목소리가 연합되고 커질 때 우리 사회는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社說

기장 ‘제7문서’에 쓰리는 우려의 시선

지난 9일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실행 위원회에서 9월 총회에서 결론이 일었던 ‘제7문서’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내놓은 수정안에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됐음에도 교단 내 동성애 반대진영이 환영이 아닌 우려의 뜻을 표한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 소속 목사 176명과 장로 231명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책위원회(대책위)는 실행위 직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된 건 당연하다면서 그 대신 ‘성적인 쟁점’이 공동의 핵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구가 첨가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표현이 장차 교단 내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7 문서’와 관련한 논란은 9월 기장 제108회 총회에서 정치부가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들어간 문서를 내놓은 데서 발단이 됐다. 해당 문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결론이 거듭되자 총회는 임원회로 하여금 본안을 수정토록 한 후 실행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교통정리 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실행위에 상정돼 결론 끝에 통과된 ‘수정안’이 다시 논란을 야기하는 모양새다. 임원회가 내놓은 안에 ‘성적 지향’과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된 대신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 인 쟁점으로 바꾸었다는 각주가 첨가됐기 때문이다.

총회의 위임을 받는 임원회로선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내에서 첨예한 친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는 걸 있는 그대로 적시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진영에선 이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교단 총회에서 문제가 돼 임원회가 ‘수정안’을 다시 내놓기로 한 이상 논란이 된 ‘성적 지향’과 ‘성 평등’ 용어만 삭제하면 된다는 게 동성애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그런데 굳이 ‘성적인 쟁점’이란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문제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장 총회는 한국교회 교단 중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분류되면서도 그간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분위기에서 교단 내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의 글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교단 교회와 성도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장 현법 신양고백서 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에 의하면, 기장 현법 신양고백서 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 어디를 봐도 ‘성적 지향’과 ‘성 평등’이 깨어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사실 교단의 ‘제7문서’에 담긴 ‘성적인 쟁점’이란 표현은 교단의 복잡 미묘한 심경을 대변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는 의미로 여겨진다면 앞으로 교단의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단 현법과 교단의 정체성이 담긴 선언문의 상대적 과정은 교단의 미래 뿐 아니라 한 국교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자체를 공식문서에 기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제7문서의 내용에 동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국가를 위해 쓰신 일기장”
이춘근 박사 _ 국제정치학자

“광야에서 외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장종현 목사 _ 백석대학교 총장

“진리의 기적 소리”
정인찬 목사 _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변함없이 진실한 시대의 사명자”
정서영 목사 _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책”
김만형 목사 _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빛을 잃지 않는 깊은 울림”
권영해 장로 _ 전 국방부 장관

“복음에 뿌리를 둔 광야의 외침”
문성모 목사 _ 전 서울장신대 총장

“고뇌와 호소가 담긴 믿음의 유산”
서현제 교수 _ 한국교회법학회장

“거룩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좌표”
남진석 설립 이사장 _ 글로벌선진학교그룹

“말씀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책”
박명수 교수 _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통찰과 사색이 담긴 글”
임태희 _ 경기도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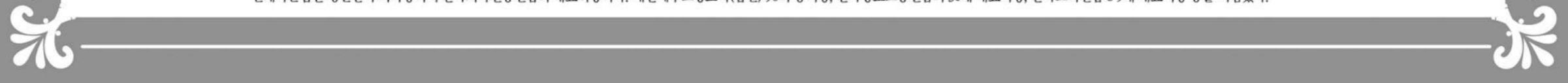
저자: 송암(松巖) 권 태 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계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령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월남전(bedo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묻은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 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제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지상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m² / 건 364m²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트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m²(44평)
-임대료: 2,500 /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m² / 건 146m²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m² / 건 191.74m²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m²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m²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m²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느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 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느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곤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경합 변호사 최희진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느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경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느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3. 3. 27. 심판경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 4.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7.
◎ 청구인: 1.김영규 (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11. 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계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hanmail.net

화성시 교회 긴급매매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 면적: 대지 100평/ 건물 250평

(지하1층~지상3층)

■ 매매금액: 280.000 만원

■ 용자금: 90.000만원

■ 입주가능일: 매매 즉시 목회 가능

*목회자 사택 즉시 입주 가능

*복지시설(요양원)동시운영 가능

▶연락처 ☎ 010-5779-2368

종교부지 매각 안내

■ 위 치 :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내

■ 평 수 : 454.7평

■ 금 액 : 평당 550만(25억)

■ 건폐율 : 50% 용적률 : 200%

●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종교부지

- 동문건설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5천여세대

독점 종교부지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분거리에 위치

- 5단지(24년 2월입주) 모든 단지 입주하여

신도수 확보 용이

- 쾌적한 공원이 단지내 위치

- 주차장 빌딩 옆 부지로 주차장 확보 용이

● 편리한 교통 인프라

1 평택 지제역(SRT) 2.5km위치 (차량5분)

2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송산 IC 바로 앞

3. 경부 고속도로 안성 분기점 2KM

☎ 1600-0459 / 010-3679-2818

현덕디앤씨 대표이사 최용현

유 대 력 탁상용 달력 무료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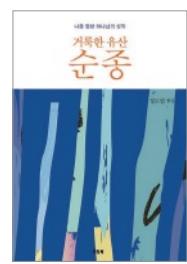
-탁상형 달력 (230x165)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표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드레게 무료보급
-1세기 초대교회 관련도서 6종도 함께 발송
-주문방법: 주소/성함/원하시는
부수/전화번호(꼭 기입)
-비용은 택배비 3,000원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흑, 택배비가 부담 스러우신 분은,
'택배' 무료요청 메세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 010-4009-1611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

신간 '거룩한 유산 순종'



순종이란 그저 조건 없이 따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과 야곱의 순종, 여기에 수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은 조건도 계산도 없었다. 이러한 순종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도연 선교사(국제사랑의 봉사단)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순종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연장해 가야 한다. 모든 순종의 꼭지점에는 다음 순종을 이어갈 지혜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아벨'부터 '다윗'까지,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순종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세 가지 대지도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다. 따라서 뭔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바울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룬다고 했다(롬 6:16-18).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순종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믿음과 순종은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설리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대상을 자신이 베풀 은혜를 받기 위해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순종이다. 모세의 순종이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의지나 결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설리에 아브라함이 떠밀려가는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은 다 하나님의 설리 가운데 귀속된 필연적인 순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은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열정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특정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대

부분이다. 평소 신실하지 않던 자가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자기 사랑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동안은 힘써 일하고 철일째, 주의 날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쉼을 누리는 성실한 삶으로 회복하는 순종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순종을 하게 한다(창 15:1-3). 하나님의 설리가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셨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유일한 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설리가 그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설리 외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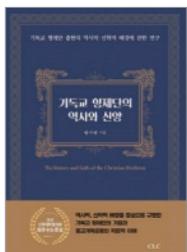
신간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

조지 월리, 허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 FF 브루스 등, 교계에서 존경받거나 잘 알려진 인물들이 기독교 형제단 출신이지만, 정작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방기만 목사(서청주교회)는 기독교 형제단 출현의 역사·신학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후예이자 '자유교회 전통'의 일원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자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필자는 형제단의 기원 문제를 역사적·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그 역사적·신학적 공과(功過)를 확인함으로써 형제단이 균형 잡힌 역사관과 자신들 고유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 역사 속에서 발현된 빛



을 재확인하고 오늘에 그 빛을 다시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형제단은 브리튼제도 내의 종교적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당면한 교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그 운동을 형제운동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성직 계급을 거부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 서로가 형제, 자매로만 여기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단순한 교회라는 공감대로 통합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형제단의 지도자들은 당대 기독교의 문제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로부터의 이탈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른바 초대 교회로의 회귀를 강

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의 신학은 이러한 그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형제운동은 국가 교회 체제를 거부한 자유교회운동이었으며, 분명한 회심을 체험한 이들, 즉 참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성직자 독점 체제를 배격하는 가운데, 모든 신자가 제사장(사역자이자 예배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중 중심적 교회를 이루고자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는 "형제단은 인간의 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도적 장치 대신 성령의 인도와 그에 대한 자기들의 직관을 따르길 원했으며, 신앙을 이성적 방식으로 구체화하거나 체계를 세우고자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감동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곁에. 서.'



사랑에 대한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들. '사랑'만큼 정의하기 힘든 단어가 있을까. 우리는 어느샌가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엮여있다. 사랑은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이지만, 견디고 감내하는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도 바울조차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첫 문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적었을까?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읽고 쓰며 가르치는 권일한 선생님

저자는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한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율리는 팽과리가 아닌, 깊고 넓고 오랫동안 묵묵하게 흐르는 삶이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고달프고 힘겹다. 끗웃이 애쓰며 눈물을 삼킨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곳이 진정 사랑과 기쁨, 평안이 필요한 곳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선생님. 그러한 선생님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하는 학생들.

저자의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고 이상적이며 명제뿐인 '사랑'을 해체하고,

구체적인 삶의 실존 가운데서 '사랑'을 정의하는 몸부림이다.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한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함께 울고 웃고, 마음을 졸이며 책장을 넘긴다. 여전히 세상에 사랑은 절실히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

모종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훌륭한 미술 작품수록 다양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잡초 속에 핀 장미꽃이나,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유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고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수록 담대하여집니다. 기도의 필수조건은 담대한 믿음(boldly believing)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만 주십니다. 완제품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루의 작업을 끝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독교의 본질은 인격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Godliness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봉희 '성숙의 최고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 2:26). 이와 같은 종족적인 야고보서의 진술은 오늘날 많은 이단이 오용하는 주요 성경 구절이 되었다. 이 구절들은 행함이 구원의 필수조건과 같이 들린다. 행함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어느 성도에게라도 천국 같 만한 행함이 있느냐고 한다면 그 누가 자신 있게 자신의 행함이 천국에 갈 만큼 충분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결국 야고보서의 이런 구절들을 오용하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닌 믿음과 행함 두 단계로 얻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몰고 가게 된다.

양형주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애단맞을 줄 뻔히 알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려는 그의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이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놀란 형들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당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손이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을 넘어선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넘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한홍 '다윗의 숨겨진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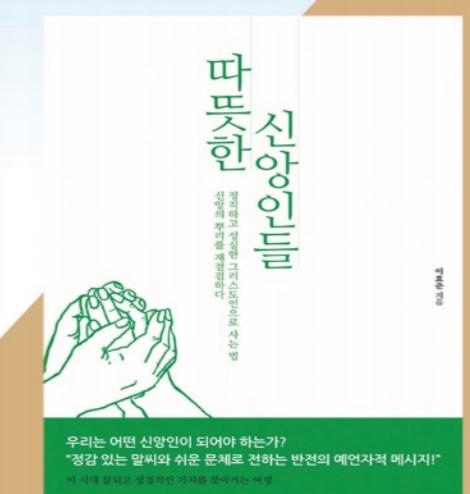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목사(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기독교의 핵심 진리, “환난 자체가 길”이라는 점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고난의 복음 (27)

환난이 길이라고 믿으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난의 길을 싫어한다. 환난이 온다는 것은 인생에서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환난이 닥칠 경우, 그 길로 가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아마 함께 하는 사람들조차 환난이 올 때 계속 전진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환난이 길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환난이 제거되면 길이 사라진다. 환난이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의 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환난의 길은 마치 길과 환난을 분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환난의 길을 걷지만 언젠가는 환난의 제거되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런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환난 자체가 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믿었던 믿음의 체계가 아닐 것이다. 환난이 길이라기보다, 환난은 인생길을 걷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환난을 대할 때는 정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기준의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개념부터 바꾸라.

환난은 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환난과 길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천만에. 이 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환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듯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할 운명이다(살전 3:3).

둘째, 환난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운송 담당자다. 환난이 길이라면, 환난은 그 길을 걷는 자를 어디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환난은 우리를 안내하는 훈장적인 팀이다. 환난이 다스



리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닥친다면, 이것은 불길한 징후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최상의 징후다.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여전히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한, 아이는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두려움을 내어 쓰고 담대한 확신이 이길 때, 그때 최상의 교육은 시작된다.

환난이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환난을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가장 고차원적 의미에서, 환난이 길이고 조력자라고 믿기를 원하는 것은 환난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에 의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다(요일 5:4).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롬 8:37).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복자보다 더 큰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적을 자신의 친구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 환난 중에 정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곧 환난이 자신의 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사람이 적을 정복하는 것처럼 환난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자신의 친구라고 믿는 것은 정복하는 것보다 크다. 환난이 반대가 아니라 길이라고 믿는 것, 환난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환난이 낙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정복하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는 또한 이것으로부터 환난이 무언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난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길이 무언가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 길에 따라오는 어떤 반대로 나타날 수 없다면, 그때 물론 이 길은 영원히 무언가로 인도해야 한다.

굉장하다! 환난의 길이 어떤 장애물도 없는 유일한 길이라니! 왜냐하면 길을 막는 대신에 환난 자체가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난은 탄탄대로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가!

나그네가 “거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여기에 항상 길이 있어!”라고 감히 언제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환난은 초인적인 것이 아니다. 환난이 초인적인 것이라면, 그때 길은 막힐 것이고 환난은 길이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인간적인 것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과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십니다(고전 10:13).”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자체가 길이 되도록 영원 전부터 시험을 마련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때 환난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환난 자체가 피할 길이 되는 것보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때 환난 자체가 언제나 피할 길이고 환난을 피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의 머리를 들라(눅 21:28).”

결과적으로 시험은 초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에, 환난이 가장 소름끼칠 때, 믿는 자는 머리만큼 더 크다. 머리만큼이다. 그는 진실로 환난 위로 들어 올리는 머리만큼 더 크다.

그리고 환난이 길이라면, 그때 믿는 자 역시 환난 위에 있다. 알다시피,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그의 머리 위로 가지 않지만, 사람이 길 위를 걷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발로 그 길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초인적인 시험 앞에서 설설 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환난이 길이라는 생각 속에 순전한 기쁨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과업이 무엇인지 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 출발할 수 있다.

어떤 의심도 길과 환난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은 영원이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길이라고 믿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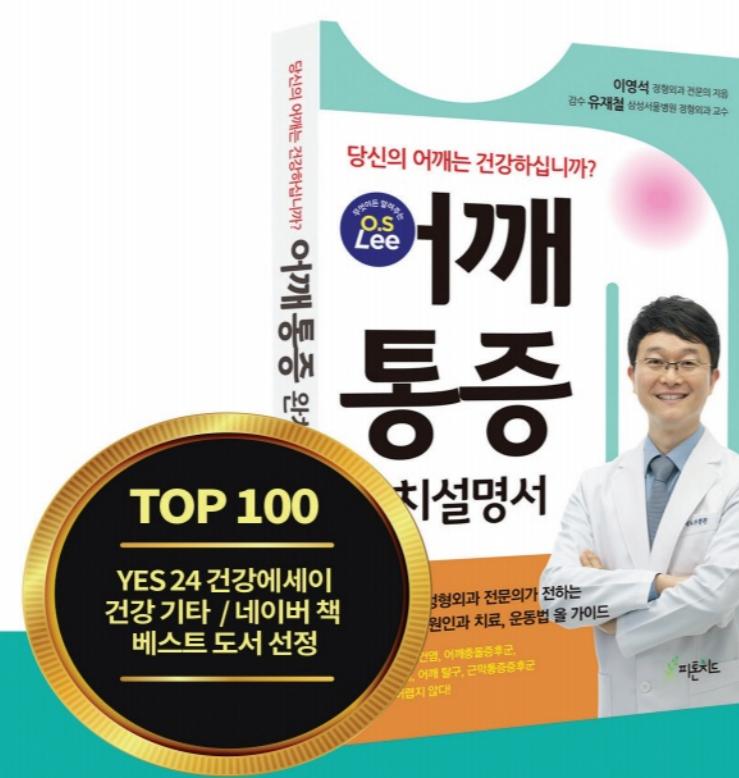
이창우 목사
(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저자,
<창조의 선물> 저자)

온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성지순례 고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카라(1)

고대 이집트인들은 함족과 셈족의 피가 섞인 주민이다. 그러나 보니 아프리카 적 요소인 상형문자(히에로글리프)는 셈족의 쇄기문자인 비상형 문자로 바뀌지 않은 채 3000년 이상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어는 고왕국 시대의 고어(古語), 중왕국~신왕국 시대의 중기어(中期語), 신왕국~말기왕조 시대의 말기어 3기자로 분류된다. 신전의 문지나 칙령 등에는 신성문자(히에로글리프)를 사용했다. 히에로글리프를 사용하였던 고왕국 시대의 신관(神官)들은 히에로글리프의 간략서체인 신관문자(히아레틱)를 만들었다. 그 후 BC 7세기에는 도상성(圖像性)이 없는 속필문자(速筆文字)인 민중문자(데모티카)가 고안되어 상업 등에 이용되었다. 콥트어는 3세기 말 이집트에서 생긴 뒤 새로운 문자 체계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이집트는 주후 641년 이슬람교도에게 정복당한 후 아랍어를 사용했으며, 오늘 날은 아랍어의 이집트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연합하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에 국가가 생긴 것은 BC 3500년 무렵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 그리스 계통인 프톨레마이우스 왕조 시대의 신관이면서 이집트의 역사학자인 마네토는 이집트 역사를 31 왕조로 구분하여 역사를 저술하였다

지금 나누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구분은 마네토의 작품이다. 마네토의 기술에 의하면 BC 2700년 무렵 고왕국의 제3왕조는 이집트를 통일하여 멘페스에 수도를 정한다. 그리고 조세르 왕 대에 국력이 신장 되어 최초의 석조 피라미드를 사카라(사카라는 6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피라미드 콤플렉스를 중

심으로 왕위 즉위 기념 축제를 위한 일종의 신전)에 건축한다. 그 규모는 동서 121m, 남북 109m, 높이 60m이다. 그 뒤의 왕들은 이것을 모방하여 피라미드로 왕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4왕조는 BC 2600년 무렵 스네프루 왕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 왕조는 남쪽으로 누비아, 동쪽으로 아시아, 서쪽으로는 리비아까지 나라를 확장했다. 스네프루 왕은 마이дум 피라미드·굴절 피라미드와 그 뒤 다수의 저경사(低傾斜) 피라미드를 건축했다. 그의 아들 쿠푸왕은 기자에 대형 피라미드를 세웠다. 쿠푸 왕에 이어 카프라멘카우레 등의 왕들도 각각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이들이 건설한 것이 기자의 피라미드들이다.

제4왕조의 신양은 라(Ra: 太陽神), 즉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왕가의 신양이 동시에 국가의 신양이 되었다. 또 한 이때 미아리를 만드는 기술도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왕조는 BC 2450년 무렵 우세르카프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에는 사후 왕의 안녕과 영생을 기원하는 피라미드 교서가 내부에 새겨져 있다. 제6왕조 페페 2세 시대는 왕권이 소야해져 자방 호족과 고관이 권력을 장악하다가 BC 2263년 무렵 몰락하였다. 제3~6왕조를 고왕국 시대 또는 피라미드 왕조 시대라고 한다.

궁의 행정관, 세습 귀족,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은 조각가요, 돌 항아리 제작자”라고 기록된 초석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임호테프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모르는 고왕국 시대의, 현재 세상이며 불멸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임호테프가 만든 조세르 파라오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0m도 넘는 여섯 개의 거대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방형 공간(555m X 278m)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 피라미드는 요철부가 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의 높이는 대략 10m 정도이다. 성곽은 사방 측면에 14개의 출입구가 있었으나 폐쇄되어 있으며, 지금은 남동쪽에 입구 하나만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식 피라미드가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피라미드라고 하면 사

신앙과 가정

말씀을 듣는다는 것

Irvine의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설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LA에 갈 때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자주 가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은혜를 제가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Staff들이나 찬양팀의 예배 자체는 눈에 볼이 날 정도로 짐 중력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고서 뒤로 나가서 딴 짓 하지도 않으며, 예배 봉사자들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이번에는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또 한 번 감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놓고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적용하여 회개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더욱 나를 놀라게



고 애를 쓰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말씀나눔을 합니다. 그때에 각 목장에서는 주일에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가끔은 제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말씀을 나누기 쉽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은혜도 불만도 결국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 날 때에 말씀이 됩니다. 그냥 설교로 듣고 흘리지 말고, 배워야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뒤적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한 것은 며칠 지난 다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난번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놓고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적용하여 회개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더욱 나를 놀라게

다리를 놓아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고마워하며 큰 감사를 표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지원받아 마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빈국에 다리를 지어주겠다는 토니의 프로젝트는 처음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노력에 이제는 고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토니가 놓아주는 다리는 마을과 마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연결해주는 사랑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가 되십시오.

주님! 주님을 전하는 귀한 다리로 써 쓰임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쓰십시오.

김장환 큐티365



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김준희

음악을 한다는 것은 도(道)를 닦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음악은 넓게는 작곡을 포함하여 모든 연주를, 좁게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도를 닦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면 사부는 '도의 지름길'을 알려줄 법도 한데 그저 머슴살이만 죽도록 시킨다. 물 길어 오기 3년, 마당 쓸기 3년, 멜감 구해오기 3년, 경우에 따라 한 3년 정도 밤 잊기를 더 시키는 사부를 만나기도 하고 돌팔이 선생을 만나 얻는 것도 없이 1년 만에 속성 아닌 속성으로 하산을 하기도 한다.

속세를 떠나 도를 깨우치고, 도인이나 선인이 되어 보려고 산에 들어갔을 때의 각오와 오죽했을까는 그 십여 년의 세월이 어디 그리 짧은 시간인가. 제자들 중에는 첫날 자격을 갖추고 수직들을 알려주는 순간 그대로 밭길을 돌리는 이도 있을 테고, 한 1년은 바꿔보는 이도 있을 테고 말이다. 물 길어오는 제자들 중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이가 있는 반면 요령껏 눈가림으로 빙 물통만 덜렁거리며 도장 문턱을 들락거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혹은 십여 년 동안 하라는 것을 빼침없이 하기는 했지만 그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왜 들어 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육체노동으로 몸만 특실헤졌을 뿐, 총기를 상실했던 이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물긷는 재미를 깨닫는 이가 있다. 아름다운 오솔길, 신선하고 맑은 공기, 이를 모를 새들의 지저귐, 계절마다 바뀌는 숲 속의 오묘한 풍경, 그것이 곧 수련의 즐거움인 것임을… 사부는 안다. 그들의 물 길어 오는 표정만 보아도, 사실은 그 머슴살이 바로 도를 닦는 과정인 것이다. 음악가(피아니스트)가 되는 길도 그와 비슷하다.

음악을 하는 것이 무슨 신선놀음이라 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큰 오산이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수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기란 불가능하다. 때로는 걸음마를 배우듯이 매우 느리게, 한 손씩, 때로는 한 마디를 가지고 몇 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 손끝에는 굳은살이 박이며 주먹을 쥐면 피아니스트임을 나타내는 특정부위의 소근육이 유효해 보일 만큼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10년, 20년에 얻을 것을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들도 똑같은 시기를 거친다. 좀 더 빠르고 심오할 뿐…

피아노의 경우, 단지 한 음을 친다 해도 그 음을 누르는 각 손가락의 압력, 타건의 속도, 타건 시 닿는 손가락의 부위, 터치의 방향, 타건의 전동작과 후동작, 팔 몸만 특실헤졌을 뿐, 총기를 상실했던 이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물길는 재미를 깨닫는 이가 있다. 아름다운 오솔길, 신선하고 맑은 공기, 이를 모를 새들의 지저귐, 계절마다 바뀌는 숲 속의 오묘한 풍경, 그것이 곧 수련의 즐거움인 것임을… 사부는 안다. 그들의 물 길어 오는 표정만 보아도, 사실은 그 머슴살이 바로 도를 닦는 과정인 것이다. 음악가(피아니스트)가 되는 길도 그와 비슷하다.

피아노 치기는 소근육 운동인자라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잠시의 휴지기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수많은 콩나물(?)들과 각종 지시어들. 이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훈련-지구력과 체력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밑 빠지지 않은 목'에 차곡차곡 물을 채워가듯이 연습에 몰두하며 그 과정 자체를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음악가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피아노는 두려운 존재, 싸워야하는 존재가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친밀한 존재가 되며 음악적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악은 (눈보다) 귀로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이 된 이후에 쓴 베토벤의 곡들은 눈을 감아도 건반이 보이듯이, 귀가 닫혀도 소리가 들리는 단계에서 작곡되어진 것이다. 그는 그의 작품을 나면의 귀로 완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들 수 없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만큼 예민한 음악적 귀'는 필수이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악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주자는 진실로 그 음악에서 요구되는 이미지 톤이 무엇인지 예측,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귀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에 알맞는 톤 컬러를 찾는다는 것은 미처 한 화가가 어떤 독특한 하늘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파란 빛깔 중 그 하늘에 가장 적합한, 즉 꼭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정교한 빛깔을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인 양 노래하고 호흡하며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것. 이때 연주자의 타고난 것들이 빛을 발한다. 명민함, 순수함, 예민함, 감정의 풍부함과 표현력, 상상력, 창조력 등 연주자의 심성이나 성격이 연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

지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쓴 대사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자자를 훌륭한 배우라고 칭찬하지 않듯이 음악 또한 연주자가 악보를 단지 정확히 치기만 했다고 해서 그를 좋은 연주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 못지않게 ‘어떻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므로 연주자의 표현 방식, 소리,

음악적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과 어우러져 최

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끌고로, 연주자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스스로 감동할 수 있음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된다.

야 한다. 연주자와 듣는 이가 동시에 무아지경을 느끼는 순간이다.

아! 그러면 드디어 드옵니다. 경지에 이른 것일까. 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을 안다. 진정한 음악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다. 음악을 통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일이다. 그 찬양 중에 감지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행복감은 음악 자체가 주는 그

여전히 희열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 김준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를,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에 귀국하여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교회음악 실기과정)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온누리교회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로 사역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즉흥연주곡집 1,2, 3』, 『생생 피아노 반주법 - 대화로 배우는 교회음악반주』가 있다.

작은 교회도 예배 기획팀을 만들자 2



우한별

예배 봉사자에 대한

목양이 우선입니다.

하이테크를 다루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통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과 요청, 그리고 해결이 찬양팀과 엔지니어 간의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일 중심적으로 변질되고 관계가 무너져 서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목회자와 예배 기획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목회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음향 담당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감과 음의 관계처럼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며 예배의 근본인 소통을 예배 담당자부터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하는 찬양팀과 엔지니어 간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손 놓

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격적이고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학회를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팀을 포함한 예배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돋는 목양일 것입니다.

급하게 않기 때문에 본질을 같이 공부하자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 기획팀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한 달 안에 예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빠른 시일 내에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욕망이 작동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기획팀이 예배에 관련된 책만 읽으면 되는 것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교회론의 바탕에서 예배 신학이 세워졌기에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이 예배의 이해를 깊고 넓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큐시트도 다르게 만들자

중대형 교회에서 예배 시 사용하는 큐시트를 작성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음향, 영상, 조명, 강단으로 담당자 별로 구분하고 순서와 시간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분 단위 또는 30초로 단위를 나눠 시간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에 강박이 있는데, 예배가 늦어지

면 다음 예배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주차장의 차량이 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조개는 표시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보여주고 참여시키는지를 중점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순차적 중심의 큐시트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 중심의 큐시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기획팀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의미와 협동 작업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큐시트만을 보고도 빨리 예배의 의미와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기획팀(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 기획팀, 또는 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처럼 미디어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쉽게 감당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배 기획팀의 음으로 작지만 튼튼하게 팀이 세워질 것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같은 마입니다.

◆ 우한별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 소장 skylight69@naver.com, YAMAHA MUSIC KOREA 음향 및 마케팅 담당, 밴드 악기 팀장과 교회 지원 사업부를 기획?개발하였으며 SOVICO 교회 음향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회 음향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업계에 만들어 지도록 촉진하였고 프로오디오 전문지 「SoundArt」, 「SOUND ON AIR」, 월간 「CHURCH MEDIA」에 교회 음향에 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기고하였다.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본질적 교회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바른 예배 신학에 의한 미디어 사역을 전하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이 책을 읽고 뛰어노는 모습이
저에겐 감동이고 큰 행복이죠.”**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 (52세)

오랫동안 출판업을 하면서
제가 살던 고향에 책마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마침 증조부님이 세운 초등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소식에
고민 없이 고향에 내려가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죠
고맙다면 간식을 쟁겨 주거나 책을 기증해 주셨고
일손이 되어 힘을 더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늘 감동이고 큰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세번째 이야기 ☺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금융그룹